제 4 장

믿음의 근거

> 혹이 너희에게 고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히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사8:19-20).

여러분들은 모든 역사에 있어서 이것보다 더 끈질긴 현상을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즉, 고통이나 위기가 닥치면, 많은 사람들은 태고적부터 점성술이나 신접한 자나 마법사나 점쟁이에게서 답을 구하려고 애써왔던 것입니다. 그것은 타락한 인간 본성의 빗나간 예일 뿐이며,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완전히, 그리고 전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점쟁이나 신접한 자 (죽은 자들과 이야기 하는 사람), 마법사나 점성술가들에게 인생의 문제들의 답을 구하러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기의 때나 곤궁한 처지에 있을 때 율법과 증거를 찾아가라고, 즉 하나님 말씀, 성경을 찾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 세계를 통하여 말씀하심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거룩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 분이 선택하신 목적과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모든 인생 국가라고 하는 공동체의 삶에는 목적과 계획이 있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하늘의 신의 뜻과 생각에 맞추어 주어진 것입니다. 그 분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또한 하나님은 그러한 거룩한 진리에 대한 정곡을 찌르는 예를 보여 주십니다.

> 비와…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사 55:10-11).

하나님의 말씀이 갖는 능력은 하나님 자신과 같읍니다. 여기서는 비가 내리는 비유를 사용하였지만, 다른 곳에서는 매일 매일 하나님께서 그 빗방울들을 꽃들로 바꾸고 계십니다. 그 분은 경작지를 밀밭으로 바꾸시고, 건조하고, 황량하고, 메마른 초지를 싱싱하고 푸른 목장으로 바꾸시며, 햇빛을 탐스런 과일이 주렁 주렁한 과수원으로 바꾸고 계십니다. 성경 속에 이 말씀을 기록하신 하나님은 바로 그 분의 입에서 나온 증거의 말씀을 보내주신 같은 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분은 "그것이 나의 뜻을 이룬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7:17을 읽어 봅시다. "시드기야 왕이 보내어… 그에게… 물어 가로되, 여호와께로서 받은 말씀이 있느뇨,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말씀하시느냐? 그 선지자는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에게 대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 있

으십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보편적인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 있읍니다. 볼 눈이 있고, 들을 귀가 있고, 깨우칠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디서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증거를 깨우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위의 피조물 속에서, 위에서, 우리의 아래서, 우리 가운데서 말씀하십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시 19:2). 하늘은 그 분을 선포하고 하늘의 별들은 그 분의 창조의 솜씨를 보여주고 있읍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 지평선 위의 아지랭이
끝도 없는, 부드러운 하늘
황금빛 넘실대는 옥수수밭
높이 날으는 기러기들
그리고 산과 들에 가득한 국화꽃의 아름다움
어떤 이들은 말하네
"정말, 가을이군"
그러나 우리들 중에 누군가
이렇게 말하리, "아, 하나님!"
보초는 근무를 서느라 얼어붙고
어머니는 자식들 때문에 굶고
소크라테스는 독배를 마시고
예수는 십자가를 지시네
천하고 이름없는 수 백만 사람들
순박하고 힘든 좁은 길을 걷네
어떤 이들은 말하네, "그건 헌신이야"
그러나 우리들 중에 누군가
이렇게 말하리, "아, 하나님!"

들을 귀가 있고 깨우칠 양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만물들 안에서 당신이 창조하신 것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심

하나님께서는 국가들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거칠고 잔인한 앗수르가 진격해 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사마리아를 쳐부수며 북방의 열 지파를 잡아갔을 때, 이사야는 하나님께 "왜 입니까?"하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읍니다. "화 있을진저 앗수르 사람이여,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한이라"(사 10:5).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잔인하고 파괴적인 갈대아인들이 유대를 파괴하고, 예루살렘과 성전을 불사르려고 왔을 때, 선지자 하박국은 하나님께 왜 그들보다 더 사악한 민족이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 보내어져야 하느냐고 물었읍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갈대아인들과, 바빌로니아인들을 명하사 그들을 심판하고, 회개시키려 하신다고 답변하셨던 것입니다(합 1:12-13 참조).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국가 지도자들에 대한 우리 주님의 통렬한 비난을 자세하게 적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 장에 이어서 위대한 종말론적인 교훈이 24장에 뒤따라 나오는데,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성전이 무너져 내릴 것과 도시가 엎어져 평평하게 될 것과 나라가 멸망할 것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말씀하시며 그 분의 심판과 그 목소리는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든지, 미국이라고 할지라도, 전능자의 계명과 율례를 어긴다면, 피할 수 없는 심판과 보응의 날을 맞이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종종 그 방법은 두렵고 비극적입니다. 우리 민족은 내일에 대한 끊임없는 공포와 불길한 예감 속에서 살고 있읍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사악한 민족이며 점차로 통제가 없고 경건하지 못한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공적인 삶이건, 사적인 삶이건, 사회 생활이건, 개인 생활이건, 국내적인 삶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면에서 미국은 점점 더 하나님을 반대하고 세속적인 길로 나아가고 있읍니다. 심판날이 올 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느끼고 있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목소리이며, 그 분은 역사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심

성경은 로마서 2:15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마음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심지어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이러한 구원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즉 성경의 지식에서 벗어난 사람들 조차도 역시 그들에게 말하는 양심, 즉 하나님의 음성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들은 찰스 다윈(Charles Darwin)이라고 하는, 진화론을 주장했던 사람의 생애에 있었던 한 사건에 깊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읍니다. 아주 작은 영국 배, "비글호" (Begale,「탐정」이라는 뜻)를 타고 그는 세계를 돌아 다녔읍니다. 그가 남아메리카 남단, 티에라 델 푸에고(Tierra del Fuego)라고 불리우는 나라에 도착하였을 때에 다윈은 그 곳 사람들을 방문하였읍니다. 이 사람들은 너무 타락해 있었고 아마도 너무 인간 이하라서 그는 이렇게 평가하게 되었던것 같읍니다. "그들은 영혼도 없고, 양심도 없으며, 선악의 분별력도 없다. 그들은 동물과 인간(Homo sapience) 사이를 연결해 주는 잃어버린 연결고리이다." 이 말이 런던으로 회답되자, 런던 선교회는 티에라 델 푸에고로 선교사들을 파송했으며 그 원주민들에게 복음을가르쳤읍니다. 그들은 회개하였고 아름답고 모범적인 그리스도교의 백성들이 되었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수단인 양심을 벗어난 영혼도, 그런 인종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섭리를 통해서 말씀하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는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아이가 태어날 때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병들었을 때, 고난을 당할 때,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분께 귀를 기울입시다. 이 모든 삶의 경험들이 주님의 말씀을 위한 수단인 것입니다.

어떤 부자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죽었읍니다. 매일 밤, 그 아버지는 자기 서재에 틀어박혀서 자기의 성경책만 읽는 것이었읍니다. 하루는 그가 일하러 외출한 사이에, 그의 부인은 서재로 가서 그가 매일 밤 그렇게 열심히 읽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 보려고 했읍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신 곳에는 전부 다, 그 사업가는 붉은 연필로 밑줄을 그어 놓았던 것입니다. 슬픔이 그에게는 주님의 말씀을 가져다 주었읍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심

이것은 신앙의 근거입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읍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 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신약의 사도들의 사역과 그의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당신의 성경, 신앙의 근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게 있어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모습은 그 분의 손에 성경을 들고 계신 모습입니다. 예수께서 나사렛의 회당에서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당신이 아이 때부터 자라나셨던 그

곳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받아 드셨읍니다. 예수께서는 그 분의 공생애를 설교로, 즉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로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승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 번에 걸친 시험에서 하나님의 성경 책에서 인용하신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되"라는 구절로 사단을 물리치셨던 것입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그 분은 자기를 비판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답변하실 때, "성경이 무어라고 하느냐?"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한 마찬가지 말씀으로, 당신을 괴롭히는 십자가 상의 죽음에 직면하셨던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자기의 칼을 빼어 들고 주님을 보호하려 하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칼을 꽂으라. 그것을 다시 칼집에 넣어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죽어야 하리라 하는 성경이 이루어 질 수 있겠느냐?"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당신의 두려운 죽음을 직면하셨을 때, 주님은 선지자들의 말에서 인용하사 승리를 선포하셨읍니다. "삼일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호 6:2). 주님의 귀에 들렸던 것, 그 분의 입술로 말하여 진 것은, 제 삼일에 그 분이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는 선지자가 말한 영광스러운 약속이었읍니다. 그것이 믿음의 근거입니다. 우리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확신, 그 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확신은, 죽음과 죄와 십자가에 대한 그 놀라운 승리에 대한 선지자들의 성경의 증언 속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이제 누가복음 24장 후반부를 자세히 살펴보겠읍니다. 이 단락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격적인 확신을 담고 있읍니다.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 중의 어느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참으로 성경은 믿음의 근거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은 프랑스의 평론가 르낭(Renan)에 의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로 인용되고 있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주님의 두 제자, 글로바와 이름을 알 수 없는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를 향해 걷고 있었읍니다.

그들은 슬펐읍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메시야이리라고 기대했던 그 분은 처형당했고, 그들의 모든 희망은 땅바닥에 내던져 버려졌읍니다. 사람들 중에는 그들에게 와서 주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그들은 그런 일을 믿을 수가 없었읍니다. 이제 25절을 읽어 봅니다. "가라사대…"(예수님은 그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읍니다. 그들은 이 낯선 사람이 누구인지를 몰랐고, 저녁 식사시간의 떡을 떼실 때에야 당신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25절을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미련한 자들"로 번역된 헬라어는 아노에토이(ἀνόητοι)입니다. 그 헬라어 어근은 누스(νοῦς)인데, "마음" 또는 "이해력"이라는 뜻이고, 이 단어는 누스(νοῦς) 앞에 알파(α)라고 하는 부정 접두어가 붙어서 부정의 뜻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말씀은 문자적으로는, "이해력이 없고, 생각이 없는 자들이여"라는 말입니다.

>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것을 조심스럽게 봅시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무엇을 마음에 더디 믿는다는 말입니까?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입니다! 천사들이 "그는 여기 계시지 않다. 그 분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 와서 주님이 누우셨던 곳을 보라"하고 말하기 전에, 그리고 그 여자들이 주님을 뵙고 그 발 아래서 경배했노라고 선포하기 전에, 또한 사도들이 세상을 향해 "그 분은 실제로 부활하셨다"라고 선포하기 전에, 이 모든 일 전에 성경의 위대한 확신적인 증거는 제 삼일에 그 분이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에 대한 놀라운 확신은 성경이, 그

거룩한 말씀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에 대한 위대한 확증

이제 누가복음 24장을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36절부터 보겠읍니다. 제자들이 다락방에 있을 때에, 예수께서 갑자기 그들 가운데서 계셨읍니다. 우리의 부활한 몸의 기적들 가운데 하나는, 영화된 몸이 벽이나 문을 그냥 통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내세에서 우리가 생각과 같은 속도로 빨리 이 곳, 저 곳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 "저는 런던에 있읍니다. 저는 홍콩에 있읍니다. 저는 지금 아프리카의 요하네스버그에 있읍니다. 저는 지금 방콕에 있읍니다." 부활한 몸으로는 우리들은 그 정도로 빠르게, 생각과 같은 속도로 이 곳, 저 곳을 옮겨다닐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상상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준비하셨읍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이 갑자기 다락방에 계셨읍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읍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자 이어지는 본문은 이런 것입니다.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하셔서 그들 앞에서 잡수셨읍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하셨읍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세 부분의 히브리어 부분들이 있읍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다시 말할 수 있읍니다. 그리스도는 모세의 율법의 주제이시며, 선지자들의 글의 큰 제목이고, 시편과 성문서들의 핵심에서 발견되는 분이시라고. 전체 성경이 그 분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 삼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읍니다.

그것을 잠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있는 곳에 서 계십니다. 그들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 분을 보고 있읍니다. 그리고 그 분은 당신의 손과 그 손의 못자국을 보여 주시고, 당신의 발과 그 못자국을 보여 주셨읍니다(그리고 사도 요한은 당신의 옆구리에 큰 상처를 덧붙이고 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만져보라. 그리고 나인줄 알라." 그리고는 그런 말씀을 하신 후에, 주님께서는 당신의 몸이 무덤에서 부활하리라는 큰 확증을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은 제가 생각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의미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눈은 잘못 볼지도 모르고, 우리의 감각은 허황된 것일 수도 있고, 우리 귀는 잘못 들을 수도 있읍니다. 주님의 음성은 환상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분명하고 확실한 것입니다. 참 놀라운 확신, 우리 주님의 부활과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신은 제자들이 그 분을 보았고, 그 분의 음성을 들었고, 그 분을 만졌기 때문이 아니고, 그 놀라운 확신은 성경이, 선지자들이 "그 분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의 구절은 놀랍습니다! 베드로후서 1:16-21을 보면, 베드로는 자기와 다른 이들이 거룩한 산 위에 있었다는 것과… 그들은 주님의 영광스러운 신성이 빛나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읍니다. 성경은 육신이 우리 주님의 신성을 덮고 있었는데, 그 분의 육신이 찢어지는 중에 비로소 그 분의 신성이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읍니다. 육체는 성육신으로 그리스도의 신성을 덮고 있읍니다. 그 분은 사람처럼 보였고, 사람처럼 걸으셨고, 말씀하시고 먹고 살았으며 잠잤고 사람과 똑같이 지치고 고단해 하셨읍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말합니다. 자기는 산 꼭대기에서 영화된 그 분을 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재림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과 권능으로 오시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는 보기만 한 것이 아니고, 그가 거기 그냥 있은 것만이 아니고, 그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음성도 들었읍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다음 구절을 봅시다.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고 했읍니다.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 분이 영광과 권능 가운데 오시리라는 위대한 증거는 우리의 눈이 보았다거나, 우리의 손으로 만졌다거나, 우리의 귀로 들었기 때문이 아니고, 그 위대한 증거와 확증은무흠 무오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책 – 신앙의 근거에 대해서 제시하신 것은 나를 놀라게 합니다! 왜냐구요? 제가 그 이유를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제가 본 것은 환상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느낀 것은 환각일 수도 있읍니다. 제가 들은 것은 환청일 수 있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하지 않으시며, 실족치 않으시고, 속이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진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서에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근거인 것입니다.

또 한 명의 다른 사도를 봅시다. 우리는 사도행전 26장에서, 바울이 아그립바 왕과 모든 왕의 신하들 앞에 섰을 때, 그가 " 아그립바 왕이여, 선지자들을 믿으시나이까?"하고 질문하는 것을 읽게 됩니다. 바울이 질문한 것이, "당신은 시몬 베드로의 증거를 믿습니까? 당신은 요한의 증거를 믿습니까? 당신은 야고보의 증거를 믿습니까? 당신은 이 죄수인 바울의 증거를 믿습니까?" 등이었읍니까? 아닙니다. 그가 말한 것은 이런 것입니다. "당신은 선지자들을 믿으시나이까?"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는 성경 안에서 발견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15:1-4에서 복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읍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이는 성

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라." 그리고 언젠가 주님은 성경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믿음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 시간에 아주 감동적인 한 편의 시를 가지고 끝맺고자 합니다. 그 시가 제게 그토록 마음을 끄는 이유는 아마도 심리적인 것일 것입니다. 그 시는 왈도파(Waldensian: 12세기에 프랑스인 Peter Waldo가 창시한 그리스도교의 일파)의 북치면서 물건을 팔러 다니는 한 남자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어린 소년이었을 때에는, 우리가 북치는 아저씨라고 불렀던 장사꾼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간혹 우리 문 앞에서 기웃 거리고는 했읍니다. 그 사람이 문을 두드리면, 어머니는 언제나 기쁘게 그를 맞이하곤 하셨읍니다. 그는 두 개의 큰 줄로 꽁꽁 묶은 큰 손가방의 뚜껑을 들어올렸읍니다. 그리고는 이 장사꾼은 나의 어머니에게 온갖 종류의 옷들을 보여주곤 하였읍니다. -옥양목, 무명, 면, 비단 등-그리고 온갖 물건이 다 있었읍니다. 어머니는 옷감을 몇 마씩 사서는, 아주 손재주가 좋으셨기 때문에 옷들을 만드시곤 하였읍니다. 나에게는 작은 웃옷과 당신 자신에게는 드레스 같은 것 말입니다. 아주 작은 꼬마로서 저에게는 거기 서서 그 모든 광경이 벌어지는 것을 구경하는 일이란 놀라운 것이었읍니다. 그 장사꾼은 북치는 아저씨로 불렸읍니다.

이러한 북치는 왈도파는 성경이 불에 타고, 성경을 베껴가지고 다니던 사람들은 기둥에 매여 순교를 당하던 중세기에 살았읍니다. 하루는 그 왈도파의 장사꾼이 궁전에 있었읍니다. 그리고 그는 왕가의 가족인 여왕같은 아가씨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석들과 비단과 공단 등을 그 앞에 보여주고 있었읍니다. 그 시는 이런 일들을 끝까지 묘사해 나갑니다. 그런데 그 장사꾼이 자기 상품들을 보여주고 난 후에, 그의 말이 기록되어 있읍니다.

"오, 아름다운 아가씨,
제겐 아직도 남은 보석이 있지요.
임금님들의 고귀한 이마 위
왕관에 박힌 보석
다이아몬드에서 빛나는 것보다 더
순수하고, 더 빛나는 보석
그 가치는 없어지지 않고
더할 수 없이 비싼 놀라운 진주랍니다.
그 광채는 당신께 매력을 주고
당신의 길에 축복이 되겠지요."
그 순례자의 치렁치렁한 외투에서 꺼낸
금으로도 보석으로도 사지 못 할
작고 보잘 것없는 책을 들 때
그의 이마에는 근심 구름 걷히네.
"여기, 아름다운 아가씨,
진주만큼 값비싼 보석이
당신께도 드러나겠지요.
아니요, 당신의 금돈일랑 두세요.
돈은 사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저니까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세상의 모든 보석들 중에서, 이 지구상의 모든 비단 장옷과 공단 외투들 중에서, 지금껏 왕들과 여왕들이 살았던 모든 궁전들 중에서, 사람들이 지녔던 모든 보석들 중에서, 가장 값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기초입니다!

저는 제가 사는 날 동안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천국의 확신도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의 부활의 확신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언젠가 예수를 보리라는 확신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는 확신도 이 바꿀 수 없고, 실패함이 없는 말씀-신앙의 근거라고 설교할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